

거물 FA 외야수 잡아라...조급한 LG, 지갑 꺼내나

FA 영입전 뛰어든 LG

황재균 kt행 후 적극적 접촉 필요성 대두
민병현·김현수 라이벌 프랜차이즈 부담
손아섭 ML행 여부 불구 영입 의지 확고

이제 시장에 남은 거물 프리에이전트(FA)는 4명으로 줄었다. 강민호(32), 손아섭(29·이상 전 롯데), 민병현(30), 김현수(29·이상 전 두산)다. 포수 강민호를 제외한 3명은 모두 외야수다. 또 김현수는 지난 2년간 메이저리

그(ML)를 경험한 해외파다. 13일 kt와 4년간 88억원에 계약한 3루수 황재균(30)과 달리 김현수는 여전히 미국 잔류에 미련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재균의 kt행이 확정된 뒤 LG에는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LG 역시 황재균 영입을 검토하다가 포기했으나, 막상 kt 입단으로 결론이 나자 다른 FA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조급증'이 감지되고 있다. 경쟁이 불가피한 FA 시장의 속성상 LG가 계획한 시간표대로만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올 겨울 단 한 명의 내부 FA도 배출하지 않은 LG의 방침은 확고하다. 공격력 보강을 위해 FA 외야수를 반드시 확보한다는 것이다. 손아섭, 민병현, 김현수가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누구도 영입을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2년 연속 ML의 신분조화 요청을 받은 손아섭만 해도 본인의 미국행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 소속구단 롯데도 결코 손아섭을 다른 팀에 양보할 수 없는 처지다. 민병현과 김현수는 잠실 라이벌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다. 양측 팬들의 정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LG는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다. 2017시즌을 6위로 마치자마자 프런트의 수장(양상문 단장)과 현장의 수장(류중일 감독)을 한꺼번에 교체한 뒤 큰 폭의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전력강화는 타당공론으로 끝낼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취약한 포지션을 보강해 가을야구 경쟁력을 갖춘 강팀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이번 FA 시장인 것이다.

김현수와 민병현은 잠실에서 검증된 기량을 갖추고 있어 매력적이다. 김현수는 비록 지

난 2년간 ML에서 부침을 겪었지만, 타력만 놓고 보면 최고의 FA다. 류중일 감독이 특히 중시하는 수비력을 지닌 민병현은 테이블세터 고만까지 해소해줄 수 있는 카드다. 손아섭 역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정상급 외야수다. 공개된 황재균의 몸값을 통해 LG가 이들 FA의 야수와 협상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공정가'의 윤곽도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 LG의 적극적 구애가 필요한 때다. LG 관계자는 14일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FA 외야수들을 향한 구체적 영입작업이 진행 중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17에 출전할 야구국가대표팀이 14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대회 장소인 일본 도쿄로 떠났다. APBC 대표팀이 출국에 앞서 필승을 외치고 있다.

결승 가든지 못 가든지 귀국편 비행기는 하나

APBC 대표팀, 20일 귀국 매수진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대표팀이 14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건너갔다. 15일 도쿄돔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뒤 16일 개막전에 돌입한다. 승부의 한·일전이 첫판부터 준비되었다. 이어 17일 대만전이다. 18일에는 일본-대만전이 열린다.

대표팀은 16~17일의 두 경기 가운데 최소 한 경기는 이겨야 19일 결승전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20일 귀국이다. 그런데 만약 대표팀이 일본, 대만에 모두 패한다면? 현실적으로 18일 이후의 일정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18일 귀국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KBO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팀을 위해 준비된 귀국 비행편은 오직 하나다. 20일 귀국이다. 즉, 일찍 결승행이 좌절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현재로서는 대표팀은 일본에서 이를 밤을 더 묵는다는 얘기다.

볼과 이를 차이니까 숙소나 비행기 취소 수수료나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생각할 때, 귀국 일정을 단일화하는 것이 낫다고 봤을 수 있다. 어떻게든 선 감독 부임 첫 대회에서 결승까지는 가겠다는 의지도 없지 않다. 결승행 좌절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는 대표팀이다.

선 감독은 14일 고척돔에서 진행된 대표팀 최종훈련에서 일본-대만전 판세를 일본의 절대우세로 예측했다. 대만은 '일본을 한 번 이겨보겠다'는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만만 잡으면 결승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국제전에서 소홀히 할 경기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표팀은 일단 대만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제2의 국민노예·제2의 국민우익수는 누구나

선동열호, 일본 입성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대표팀이 14일 일본 도쿄에 입성했다. 이번 대표팀은 만 24세 이하 또는 프로 3년차 이하의 선수들만으로 구성된 젊은 대표팀이다. 주전 유격수 김하성(넥센)을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성인대표팀 경험이 없다. 선동열 대표팀 감독은 젊은 선수들

에게 최대한 국제대회 경험을 많이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단 한 명의 '와일드카드'도 뽑지 않았다.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장필준(삼성)으로 1988년생이다. 막내는 1998년생인 '바람의 손자' 이정후(넥센)다. 전력만 놓고 보면 이제까지의 대표팀과는 분명 무게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태극마크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과거 어느 대표팀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번 대회는 일본야구의 성지인 도쿄돔에서 열린다. 한국은 16일 일본, 17일 대만을 상대로 예선 두 경기를 치르는데, 공교롭게도 첫 경기가 한일전이다.

이를 향한 우리 대표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주장 구자욱(삼성)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다. 이기기 위해,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 대회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불펜의 핵으로 떠오른 구창모(NC)는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고 했다. 어디서든 내 몫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야구팬들 또한 선수들만큼이나 이번 대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대화두는 역시 대표팀의 오랜 숙원인 '세대교체'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깜짝 스타의 출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국

구창모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아야" 젊은 선수들로 구성...새로운 스타 탄생 기대

가대항전은 항상 국민의 눈과 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올림픽 같이 큰 대회에선 '국민노예', '국민우익수' 같은 진귀한 별명들이 쏟아졌다. 이번 대표선수들은 특정 몇몇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제2의 '국민' 타이틀을 가져갈 대표팀의 미래자원은 과연 누구일까. 젊은 태극전사들의 열도 정복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곽창일 기자 ico@donga.com

코골이 소음으로 방해 받고 있다면...

코골이완화에 도움을 드리는 휴메트론 스노링!!

코 크기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 쏘~옥 넣어주면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주어 편안하게!!

호흡량 증가! 코골이 증상 완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신고한 제품

1세트 98,000원·출시가 49,000원
2세트 구입시 (10,000원 더 할인) 88,000원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보관함이 있어 반영구적 사용~ 여행, 출장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골이!! 옆 사람에겐 고문, 이젠 휴메트론 스노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주는 **휴메트론 스노링**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에 신고한 제품)

※코골이란 ⇒ [영사] 자면서 코를 고는 일. 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네요~

성인 10명중 3~4명 꼴로 나타날 정도로 흔하다. 2) 코골이 행하는 부부간 수면 시 또는 단체수면 시 옆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안겨 주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면장애로 인해 자고도 개운치 않고 피곤하여 낮에도 자주 졸려하고(주간졸림), 집중력 저하, 피로, 두통 등으로 일상생활 또는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증상이 심해지면 수면 중 무호흡과 저호흡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면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될 수 있으며 치매,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3-6) (주석2-4) 곽창일

[출처] 논문제목: 코골이 대상자에게 비강사혈흡인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 - 저자: 신미란, 김희택, 고호연, 김영지, 김정범 - 발행일: 2017년 5월 - 발행페이지: p.140

휴메트론 스노링 본체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코팅되어 있으며 항균효과까지 되어있습니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 연구원에서 시험완료 된것으로 제품의 시료를 검사한 자료입니다.

원적외선시험성적서 음이온시험성적서 항균시험성적서

※ 이럴때 사용하세요.

1. 수면시 2. 운전시 3. 공부할 때 4. 운동할 때 5. 등산할 때

운전할경우 휴메트론 스노링을 착용하게 되면 ~ 비강을 확장시켜 호흡량을 증가시켜 줍니다.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드리는 **휴메트론 스노링** 반영구적 사용가능한 본체, 보관함, 사용설명서 이 모두를 **49,000원**에 드립니다.

상담 및 주문전화 / 070-7425-1593

의료기기 업체인 진화 메디칼 주식회사의 아심작!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므로 더 믿을 수 있습니다!